

건설근로자공제회, 신임 장건 이사장, 박준효 상임감사 취임

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신임 이사장으로 장 건(張 建) 前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, 상임감사는 박준효(朴竣孝) 前 고용노동부 감사관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.

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“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‘당당한 경제 주체’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”라며, “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‘건설 기본사회’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신임 장 건 이사장은 한신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, 두레생협연합회 회장,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,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.

신임 박준효 상임감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, 대검찰청 검사, 법무법인 원 변호사로 활동하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을 역임했다.

신임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6년 4월 20일부터 2029년 4월 19일까지 3년이며,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.

붙임. 신임 이사장, 상임감사 사진

담당 부서	건설근로자공제회 전략기획부	책임자	부 장 조 원 구	(02-519-2011)
		담당자	과 장 이 상 민	(02-519-2013)



장 건(張 建) 이사장



박준효(朴 竣 孝) 상임감사